

## 오륙도 칼럼



박 태 욱

(소설가·남구 향토사 연구위원)

무병장수는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 숙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불로불사의 모습으로 바뀐다.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비법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 연원은 아마도 중국의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다. 신선은 이슬을 먹고 바람을 일으키며 구름을 타고 천릿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존재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다.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신선사상의 요체다.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펴서 창공을 날아오르는 이른바 '우화등선(羽化登仙)'이 최종 목표가 된다. 그런데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는 마음이 급했던 모양인지 곧장 신선이 될 수 있는 선약을 갈구했다. 신선 의증을 가장 빨리 헤아린 이가 방사(方士) 신분의 서복(徐福)이었다. 그가 얼마나 높은 도력을 지니고 있었는지 몰라도 시황제는 이른바 '불로초 원정단'의 중책을 그에게 맡긴다. 그는 동남동녀(童男童女) 500명을 거느린 대선단을 꾸려 신선이 살고 있는 전설 속의 삼신산(三神山)을 찾아 떠난다. 삼신산의 위치는 보하이만(발해)의 동쪽으로 불래산, 방장산, 영주산을 일컬었다. 바로 한반도의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 삼신산이었다.

### 불로초 원정대 전설 깃들여

2200여년이 흐른 오늘날 서복의 탐방로에는 '서시과차(徐市過此)'라는 암각

## 강선대, 잊혀져가는 전설에 대하여

글자가 압벽 등에 남아 있다. 이 네 글자를 굳이 풀이하면 '서복이 인적이 있는 이곳을 지나가다' 정도가 될 것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제주도 정방폭포 압벽과 경남 남해 금산의 암각이다. 그 외에도 서복이 다년간 흔적은 전국 곳곳에서 관촬되거나 전설로 남아 있다. 우리 남구에도 서복이 다년간 전설이 구전돼 왔다. 바로 문현4동 배정고등학교 뒷산인 '강선대(降仙臺)'가 그곳이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을 신선들이 노닐었던 넓은 터로서 '광선대(廣仙臺)'라고도 불렀다. 누가 어떤 근거로 그리 불렀는지 알 길이 없다. 한 원로 분의 기억에 의하면 강선대는 넓을 '광' 자를 갖다 붙여 광선대로 부르기에 어색함이 있는 곳이라 했다.

뿐만 아니라 1952년 설립된 배정학원의 교가에서도 '강선대'로 표기하고 있다. 때문에 광선대라고 표기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신선이 내려온' 강선대로 한정해서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이곳 강선대 위쪽, 그러니까 장고개 고가

지점에 올라서면 신선대는 물론 부산 내해와 영도 불래산이 한눈에 조망된다. 삼신산 중의 하나인 불래산과 이름이 같은 산이 눈앞에 있으니 서복으로서도 호기심이 동했을 게다. 그 후 영도로 곧장 건너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랫동안 문헌 등에 구전돼 왔다. 장고개를 오르는 어디쯤에 '서시과차'라는 표지석이 광복 후까지 있었다고 전해진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와전된 이야기 아닐까 싶다.

### 스토리텔링 소재 가치 충분해

일제는 조선 강점을 노골화하면서 천황을 신격화하기에 혈안이 돼있었다. 자연 현황보다 격이 높은 신선의 존재를 방관할 리 없다. 더욱이 일본인 관사가 장고개 밑에 있었고 연합군의 폭탄 투하에 대비한 일본인 전용 피난 땅굴이 지금의 금장골목 안쪽에 조성돼 있었던 점도 주목해야 한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을 위한 공간입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 장자산 요가회를 아시나요

요가는 원래 6000년 전에 고대 인도에서 시작된 심신 수련 방법으로 명상과 호흡, 아사나(동작)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인도 경전에 따르면, 요가는 심신을 단련하고 정신적 평화를 추구하며 최종적으로 신에게 가까워지는 상태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처음 접하는 사람은 요가에 대하여 거의 무지에서 출발하게 된다. 우리 남구에는 장자산 요가회(현 7대 회장 차대호)가 있다. 처음 용호중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시작(초대회장 김재성)해 이제는 장자산 솔밭 어구에서 터를 잡아 매일 아침 요가를 시작한다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처음 요가를 시작할 때 회원들 나이가 이미 50~60세 전후로 동작이 영 민통하지 못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수련의 집중도가 높아져 심신을

수련하는데 스스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시작한 회원 가운데 건강 때문에 요가를 포기한 이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늘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 특히 안정순 요가 강사는 요가 수련 도중 늘 호흡 및 동작 등에 매우 세심하고 탁월하게 지도해 준 덕택으로 회원들은 강사의 동작을 열심히 따라 수련하고 있다. 창출어람이라 할까, 어쩌다 강사가 깜빡해 동작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회원들이 지적을 할 정도로 일취월장해졌다.

장자산 요가회 회원 50여명은 아름다운 정을 나누고 있다. 매년 두 차례 국내 좋은 곳으로 단합회도 갖고 동백나무 심기, 숲 가꾸기 등으로 장자산 보호에도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이기대 공원일몰제 때문에 이기대를 개발하려는 제안서가 부산 시로부터 반려되었고도 하나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 줄 천혜의 이기대 해안을 매일 아침마다 보면서 어떤 지 쓸쓸한 마음이 든다.

요가회의 온갖 묵은일을 도맡아 솔선수범하고 있는 노항숙 총무가 간혹 밥상 설치며 부부마리는 별미를 만들어와 장자산 가꾸기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필자의 마음도 훈훈해진다. 요가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김선종 회장을 비롯한 역대 요가회 회장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삼복대위도 지나고 어느덧 처서를 지니 가을이라는 시원한 선물이 곧 회원들에게도 찾아갈 것이다.

최대복(장자산 요가회 회원·용호새마을금고 이사장)

## 지게골경로당 93세 이쾌영 총무님 존경합니다

문헌동 지게골복지자이 건립된 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지관 내에 남아 노인정이 있는데 2006년 노인정에 입회할 때 할머니방 42명, 할아버지방 20여명 등 6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80대 노인분들은 한 번씩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에 회장과 총무를 뒤 운영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할머니 방의 총무가 5번이나 바뀌어 지금은 93세 이쾌영 할머니가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얼마전 남구청에서 운영하는 한글교실에서 한글을 배워 할머니방 총무를 맡고 있는데 아라비아 숫자는 사용하지 않고 구입한

물건의 액수를 모두 한글로 장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을 알게 되자 맨 먼저 한 일이 신약·구약 성서 완독이었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연세가 많아지면 하던 일을 접고 만사를 귀찮게 여기지만 이쾌영 할머니는 너무나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특히 남을 배려하는 마음씀씀이는 존경스럽습니다.

6·25 때 한 살 어린 남편이 지뢰를 밟아 24살에 청상과부가 되었습니

다. 다행히 숨진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유족연금을 받으며 어린 두 아들을 잘양육해 훌륭하게 키웠습니

다. 할머니는 50년 가까이 문헌동에서 사시다 몇 달 전 대연역 부

근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경로당에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근적일이 몸매에 배었으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아깝잖아 지갑을 꺼냅니다. 노인정이 건립된 지 10년이 지나 김치냉장고가 고장 나 김치 보관이 힘들고 여름철엔 수박 하나 먹지 못했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는 100만원의 사비를 들여 김치냉장고를 사 노인정에 기부하기로 했습니

다. 이 어르신인 인성을 본받고 아름다운 마음을 널리 알렸으면 하는 마음에 펜을 들었습니다.

전순임  
(지게골복지자이 경로당 부회장)

### 강경호의 캘리그래피 2017 ① 캘리그래피의 세계

## 소통 위한 '손글씨'의 몸짓



'그녀의 자전적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는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 어느 날부터인지 '캘리그래피'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왔다. 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용어는 한동안 매스컴 곳곳에 등장하고, 서적, 포스터, 행사, 광고 등 지면을 장식했다. 포털 창

에 쏟아지는 동영상 강의와 블로그, SNS 등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떠올랐다.

그런데 알기에는 한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사전과 검색을 통한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고 치자.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베틀)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캘리그래피 대부분은 '소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단추는 메시지의 분명한 전달이다. 문자 언어로서 가독성을 중심으로 작가의 감성과 철학도 녹아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작위적인 뒤떨림과 기교에 치우친 작품들이 캘리그래피라는 이름으로 간혹 시야에 들어올 때가 있다.

속성 과외처럼 비슷한 모양의 기계식 글들이 양산되고, 창의와 영혼 없이 공공에 내걸릴 때, 작가와 작품의 존중과는 무관하게 약간의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캘리그래피는 누구나 자신의 감정과 사상을 주변 여러 가지 도구 등으로 손을 사용하여 문자나 이미지 등의 언어로 표현하는 분야로 분명한 것은 목적과 대상에 대한 통렬한 자기 고찰이다. 캘리그래피 아티스트 겸 인터넷신문 수영넷(suyeong.net) 대표

## 신선대

<259>



## 우리지역 일자리 알리판

<2017. 8.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다올아울렛	용당동	회계사무원	1명	17. 08. 18~ 채용시까지	월 150만원	010-8214-1310
smotors	감만동	자동차정비원 (도장원)	1명	17. 08. 18~ 채용시까지	월 320만원	051-752-0172
(주)신대양	대연동	자기용운전원	1명	17. 08. 18~ 채용시까지	연봉 2,928만원	051-625-8114
해일 글로벌	용당동	사무보조원	2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136만원	051-627-7275
선별연합의원	감만동	간호조무사	2명	17. 08. 17~ 채용시까지	경력 160만원 신입 130만원	051-644-7582
(주)파리제이츠	대연동	외류판매원	1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170만원	010-4579-0770
(주)선보비케이원	용호동	사무보조원	1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150만원	051-627-3421
오륙도 요양병원	용호동	3급대 간호조무사	1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140만원	051-647-7007
(주)상동실업	용호동	시민여객버스 미화원	1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110만원	010-2315-8067
(주)한우리종합관리	대연동	아파트 전기원	1명	17. 08. 17~ 채용시까지	월 250만원	051-626-9756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 장모님

김동섭



장엄 모습 그 자체의 무디름 귀지 때문인 것이다. 실제 의사전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임천수스피치학원 원장

### 산다라 물 따라

## 산행을 떠나요



<2017. 9.>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9/10(일)	김천 황악산	010-3832-5971
	한울람산악회	9/10(일)	거금도 적대봉	010-9975-8688
	약천산악회	9/20(수)	지리산 대원사 계곡	010-4655-4370
	백호산악회	9/13(수)	충남 금산 실이폭포	010-2596-5183
	금강산악회	9/3(일)	충북 단양 도락산	010-3865-9051
용호동	용신산악회	9/10(일)	충북 흥성(용봉산)	010-4657-7051
	청산산악회	9/3(일)	제천 북바위산	010-8008-2087
	해물산악회	9/17(일)	경북 영덕 칠보산	010-7154-3166
	환경산악회	9/3(일)	무주 압해어사길	010-3575-3448
	여남산악회	9/10(일)	문경 운달산	010-3655-6569
감만동	신선산악회	9/10(일)	전남 광양 금천계곡	010-6520-0167
	용호산악회	9/24(일)	지리산 노고단(성삼재)	010-6266-8525
	용사산악회	9/24(일)	문경 도장산	010-2124-9329
	여명산악회	9/3(일)	경북포항 보경사	010-3554-4392
	글로벌산악회	9/17(일)	전주 한옥마을 선비길	010-4752-2940
용당동	문화산악회	9/24(일)	속리산 문장대	010-3856-7850
	용마산악회	9/10(일)	괴산 산미가엇길	010-2692-1170
	백운산악회	9/24(일)	순천 조계산	010-2861-3177
	녹색산악회	9/24(일)	보은 속리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9/17(일)	청송 백석탄계곡	010-8287-1192
우암동	우암산악회	9/3(일)	거창 금원산	010-3595-5848
	우남산악회	9/17(일)	안동 천지각산	010-7520-6666
	문현2동산악회	9/10(일)	거제망산	010-2902-8322
	월부리산악회	9/17(일)	문경 운달산	010-4564-7769
	산부리산악회	9/3(일)	전남 여수 금오도	010-4035-3432
문현동	문사산악회	9/10(일)	충북 제천 가은산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인(제1회 오륙도문학 신인상),  
용호3동 통장협의회회장

###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현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